

# 韓 찾은 '메이즈 러너' 3인방 “시리즈 동안, 함께 성장했다”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미로로 돌아간 러너들의 마지막 사투  
“5년 걸쳐 완성한 시리즈작, 만감교차”



배우 이기홍(오른쪽부터), 토마스 생스터, 딜런 오브라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영화 '메이즈러너 데스 큐어' 기자회견장에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미로, 본 적 없는 괴생명체들과 의문의 조직 등 참신한 스토리로 국내 영화팬을 사로잡은 '메이즈 러너'(감독 웨스 볼) 시리즈가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로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영화 '메이즈 러너' 시리즈는 지구를 뒤덮은 플레이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러너'들과 이들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위키드'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토리를 그린 작품.

2014년, 살아있는 미로 속에서 기억을 잃은 러너들이 생존 게임을 펼친다는 내용은 국내 관객에게 설 틈 없는 스텝과 미스터리, 액션을 동시에 선사했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에서는 인류의 운명이 걸린 위키드의 위험한 계획에 맞서 다시 미로로 돌아간 러너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린다.

11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는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의 주역인 배우 딜런 오브라이언,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이기홍이 참석한 가운데 내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는 저희 모두에게 의미있는 작품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 슬픔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영화, 좋은 시리즈에 좋은 배우, 스텝과 함께 했기에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5년에 걸쳐 시리즈를 완성한만큼 주인공 3인방이 이번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개봉을 앞둔 심경은 남다를 터. 딜런 오브라이언의 소감에 이어 토마스 브로디-생스터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동안 배우도, 감독도 함께 성장했다.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 영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더 나은 배우로서 관객과 만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강렬한 존재감을 보인 주인공 3인방은 차세대 배우에서 대세 배우 반열에 들어섰다. 딜런 오브라이언은 전편과 달라진 점에 대해 “내가 연기한 토마스 캐릭터는 산전수전 다 겪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기홍은 촬영현장에서 외로웠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은 촬영할 때나 쉬 때나 함께 몸쳐다녔어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스토리상 민호가 위키드에 납치된 상태라 혼자 촬영해야했어요. 현장에서 매일 만날 수 없어 슬펐죠.(웃음)”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는 시리즈 사상 최고의 스텝과 액션을 예고한다. 오는 17일 개봉. /신원선 기자 tree6834@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

## 설원을 누비는 '짜릿한 몸짓'

###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6 프리스타일스키

모굴·스키크로스·슬로프스타일  
하프파이프·에어리얼 5개 종목  
공중돌기 등 다양한 기술 선택

프리스타일 스키는 스키를 타고 다양한 몸짓으로 설원을 누비는 경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통상 모굴·스키크로스·하프파이프·슬로프스타일·에어리얼 등 5개 종목이 포함된다.

프리스타일 스키에서는 속도만을 겨루는 알파인 스키에서 더 나아가 공중돌기 등 화려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녀 모굴·스키크로스·하프파이프·슬로프스타일·에어리얼에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오는 2월 9일 남녀 모굴 예선을 시작으로 23일 여자 스키크로스 결승까지 평창 휘닉스 스노경기장에서 열린다.

모굴은 울퉁불퉁한 바닥의 코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하는 종목이다. 두 차례 점프의 기술 난도와 자세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둔덕을 통과할 때의 회전(턴)이 점수의 60%를 차지하지만, 속도와 점프 기술도 비중이 있는 만큼 다방면의 스키 기량이 요구된다.

에어리얼은 기계체조의 도마와 자주 비교되는 종목이다. 도마 경기처럼 도약을 거쳐 날아올라 착지하기 때문이다. 높이나 동작의 완성도, 착지 등을 통해 순위를 가리며, 도약이 20%, 폼이 50%, 착지가 30%를 차지한다.

종목의 특성상 기계체조에서 전향하는 선수가 많은 종목이다. '도마의 신' 양학선을 키워낸 조성동 감독이 대표



1 지난 2017년 2월 24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반케이 경기장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아게임 프리스타일 스키 듀얼 모굴 남자부 예선에서 최재우가 설원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2 지난 2017년 2월 10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스노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2016/17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에어리얼 예선 경기 모습. /뉴스시스

팀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기계체조 선수 출신인 김남진(22·한국체대) 등이 1세대 개척자로 꼽힌다.

하프파이프는 이름처럼 '반으로 자른 파이프' 모양의 슬로프에서 펼쳐진다. 선수들은 너비 19~22m, 높이 6.7m의 반원통 모양 코스의 양쪽 끝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공중회전, 점프 등을 선보인다.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결선에서 한국 선수 사상 최고 성적인 7위를 기록한 김광진(23·단국대)은 이 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최근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아 평창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이나 테이블, 박스 등 여러 기물과 점프대로 코스가

구성돼 보다 다채롭다. 기물 위에 올라선 채 내려오거나 점프대에서 공중 동작을 선보인 뒤 착지하는 등 역동적인 연기가 펼쳐진다.

하프파이프나 슬로프스타일에선 5명의 심판이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낸다. 두 번의 연기 중 더 높은 쪽을 선수의 최종 점수로 삼는다.

스키크로스는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 중에선 유일하게 여러 선수가 동시에 겨루는 종목이다. 통상 4명이 1개 조로 경주를 펼치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속도에 방점이 찍힌다.

역대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에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가 득세한 가운데 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에어리얼이나 하프파이프 등에서 메달을 보유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남자 에어리얼 강자인 치광푸(28·중국) 등의 활약에 기대가 쏠린다.

프리스타일 스키는 한국에선 알려지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올림픽 출전 역사도 길지 않다.

간판 선수인 최재우(24·한국체대)는 생애 두 번째 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노린다.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고 성적인 5위에 오른 최재우는 소치 올림픽에서 한국인 선수 최초로 프리스타일 스키 결선에 진출했으나 실격할 바 있어 평창에서 설욕을 베풀고 있다. 그는 지난달 두 차례 월드컵에서 연이어 4위에 오르며 조심스럽게 메달 희망을 엿보고 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듀얼 모굴 4위에 오른 여자부의 서지원(24·GKL), 지난해 월드컵 7위를 기록한 여자 슬로프스타일의 이미현(24) 등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짐 / 17:34

1월 12일

음력 : 11월 26일

수도권 날씨

# -15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20/-6

동두천 -18/-4

가평 -19/-5

파주 -21/-6

서울 -15/-5

양평 -17/-5

인천 -13/-6

수원 -15/-6

용인 -15/-6

평택 -1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 오는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송봉 행사에 올림픽 역대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한다.
- ▲ 한국 크로스컨트리 간판 이채원(37)이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크로스컨트리 여자 5km 클래식에서 2017-2018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 ▲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멤버로 활동 중인 유승민(36) IOC 선수위원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복한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데 동참한다.
- ▲ 오는 21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 올스타전 입장권 4200여 장이 매진됐다.
- ▲ 한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 전혁진(동대 졸업예정)과 최술규(한국체대 졸업예정)가 요넥스 배드민턴단에 입단했다.
- ▲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는 측면 공격수 이호석(27)과 미드필더 이우혁(25)을 영입했다.
- ▲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미드필더 이승기(30), 한교원(28)과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 ▲ 고희영(27)과 김재윤(28)이 kt wiz에 신인으로 입단한 선수 중 최초로 역대 연봉자가 됐다.